

# 미생물로 오염된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 필요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색조 화장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테스터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테스터 화장품이 위해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테스터(tester) 화장품'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을 의미한다.

글\_ 최윤희 대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 다수 제품 개봉 상태로 비치, 미생물 오염 확인돼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비치·표시 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하고 있었고,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마스카라 3개·립제품 3개, 1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아이섀도 12개·마스카라 1개, 31.0%)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이하 립제품) 16개 제품

\*\* 미생물 4종: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 조사 제품 30% 이상, 위생 불량

조사 대상 테스트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되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섀도 16개 중 2개 제품(12.5%)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마스크라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으며, 3개 제품(18.8%)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개봉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없어 유통 화장품 미생물 기준을 준용

\*\* 1개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중복 검출

## 테스터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눈과 입술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마스크라, 아이섀도, 립스틱 등의 용기는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Open jar)가 많아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오염 가능성이 높다. 오염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염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관련 업체는 이

## 유형별 위해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 제품 수

[단위 : cfu/g(mL)]

구분	총 호기성 생균 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아이섀도	2개(510~2,300)	1개(검출)		
마스크라	5개(550~2,2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립제품	4개(1,530~2,140,000)	3개*(검출)		

\* 1개 제품 중복 검출(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 기준 : 총 호기성 생균 수(는 화장품 500 이하/ 기타화장품 1,000 이하),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불검출)

를 수용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비자의 '테스터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눈·입술 부위 직접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했다.

TIP

### 테스터 화장품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1. 테스터 화장품 사용 시 가능한 사업자에게 화장솜 등을 요청해 윗부분을 닦아내고 일회용 도구(브러시, 면봉 등)를 사용해 테스트 하도록 합니다.
2. 테스터 제품 사용 시 최대한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 하도록 합니다.
3.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 확인 후 제품을 테스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부에 테스트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매장 비치 테스터 화장품

뚜껑(뚜개) 有			뚜껑(뚜개) 無	
				
아이섀도	마스크라	립스틱	아이섀도	립스틱